

 금융위원회	보도참고자료				• 생산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 • 포용적 금융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19.9.20.(금)	
책 임 자	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김 연 준(02-2100-2680)			담 당 자	심 원 태 사무관 (02-2100-2688)

제 목 : 소속 외 근로자 수 공시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 대하여 설명 드립니다.

- 소속 외 근로자* 수 공시는 일자리위원회·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「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」(17.10월)의 일환이며
 - * 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간 파견, 용역, 도급 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근로자
-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투자자 등에게 기업의 고용 관련 정보를 보다 상세히 전달하려는 취지임
- 사업보고서에 기존 단시간·기간제 근로자 수만 공시하던 것에 추가하여 소속 외 근로자* 수를 공시하는 것으로
 - 현재 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의 「고용형태 공시정보」에 소속 외 근로자 수가 이미 공시(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회사)되고 있음
 - 금번 증발공 규정 개정안은 이와 동일한 내용을 사업보고서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님
 - 아울러 기업의 공시부담을 감안하여, 年 1회만 공시하도록 하고 분·반기 공시 의무는 면제하였음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